

경북도, AI 디자인 산업 인재 요람으로 거듭난다

도-구미시-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컨소시엄 산업부 공모 선정
26년까지 국비 90억 지원... 구미 공단동에 2500평 교육공간 구축
49종 227대 디지털·가상화 장비로 제조 결합 산업 경쟁력 제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디자인 AI 인프라 구축 사업' 공모에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북도, 구미시,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이 선정돼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국비 90억원을 지원 받는다.

최근 산업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산업부는 AI 디자인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하는 'AI 디자인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이러한 산업 환경과 정부 정책 변화에 발맞춰 경북도와 구미시,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이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지난해 초부터 해당 과제를 산업부에 선제적으로 공동 기획·건의했고 올해 공모 선정을 통해 그 결과를 맺었다.

'디자인 AI 인프라 구축 사업'은 중소·중견기업, 디자인 전문회사,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빅데이터·AI 기반 트렌드 분석을 통한 상품기획과 함께 시제품 제작, 제품 검증 등 상품개발을 위한 전 주기를 지원하며 AI 디자인과 상품기획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디자인 AI 인프라 구축 사업' 공모 선정으로 구미시 공단동 일원에 지상 5층 규모(전용면적 2500평)로 49종 227대의 디지털, 가상화 장비를 갖춘 디자인 AI 전문 인프라가 건립될 예정이다.

대형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AI 트렌드, 생성형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AI 디자인, 사용자 테스트(UT), 가상화 기술을 활용한 XR 메이킹 등 으로 구성된다.

특히 경북도와 구미시는 이번 국비 확보로 지역 내 기업들이 빅데이터·AI 기반 상품, 서비스,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대내외 환경을 식별, 예측해 제안된 디자인을 가상 융합기술을 통해 시제품을 제작한다.

아울러 사용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상품 개발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상품화를 위한 비용 절감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최영숙 경제통상국장은 "기업 경쟁



올바른 칫솔질로 20대 치아건강 80대까지 19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15회 대구진로진학박람회'를 찾은 학생들이 대구보건대학교 부스에서 올바른 칫솔질 등 구강위생 관리법을 배우고 있다.

력의 필수 요소인 디자인과 산업 변화 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인 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소프트 파워인 디자인 산업과 도내 제조기업이 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500만 경제권 갖춘 TK' 청사진 윤곽

도, 도의회에 행정통합 협의 보고
권한 이양 등 자치권 강화 방침
추 "도민 삶 바꾸는 통합 추진"

경북도는 지난 19일 '경북도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 워크숍'에서 대구시와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공동 마련 전 협의 중인 경북도의 방안과 내용을 도의회에 보고했다.

경북도는 경북도 안에 특별행정기관 이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지방의회 등 자치권의 강화, 통합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자율성과 지원 확대, 통합 발전 전략 실현을 위한 분야

별 특례와 규제 완화를 중점 반영해 대구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동서남북 권역별 균형발전 구상안을 개략적으로 보고했다. 특히 북부권 발전구상과 관련하여 △통합 행정복합도시 △산업단지 중심의 경제·산업 대학신 전략 △한류 콘텐츠 메타도시 △백두대간·낙동강맥 산립대 전환 프로젝트 △북부지역 중심의 중부내륙권 초광역 발전계획 △북부지역 철도망을 대폭 확충하는 대구·경북 통합 순환 철도망 등 행정과 산업·경제, 문화·SOC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검토하고 있는 방향을 설명했다.

또 통합 이후 하나 된 대구·경북의 초광역 발전 전략에 대해서도 간략히

보고했다. △한동해·아태권 발전 전략으로 신영일만 구상, 환해해 해양개발 오션플랜과 APEC 글로벌 도시 △호남권 연계 발전 전략으로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와 동서 연결전철망 등 한반도 동서 SOC트레이 △남쪽의 부·울·경 권역과 연결되는 범 영남권 전략으로 TK-PK 초광역 철도전철망, 영남권 수소경제 벨트 △충청·강원과 연결되는 북부권 초광역 전략으로 한반도 중부경제권 구상과 남북 9축 고속도로 등을 설명했다.

경북도는 통합 이후 500만 경제권으로 경쟁력을 갖춘 대구·경북이 주도하는 초광역 발전 허브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 지도를 재구조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도의회는 경북도의 보고에 대해 박성만 도의장과 배진석·최병준 부의장을 비롯해 이준우 운영위원장,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 권광택 행정보 건복지위원장, 윤종호 의회대변인 등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일방적인 통합추진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다양한 입장과 의견이 수렴된 신중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통합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철우 지사는 "통합에 있어 시·도민의 뜻과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와 소통과 공감의 중요하다. 도의회와 함께 과정과 절차를 공유하며 통합 미래 비전을 가다듬어 시·도민의 삶을 바꾸는 행정 통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새 생명 얻는 동성로, 관광 명소로 부상

대구 최초 관광특구 지정

대구시는 동성로가 22일 대구에서는 최초로 관광특구로 지정·고시돼 국비 지원사업 추진 등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중구 동성로 및 약령시 주변 일원(면적 1.16km²)이다.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대구시가 최근 상권 침체로 위기에 처한 동성로 상권의 부활을 위해 문화관광, 상권, 교통, 도심공간 등 4개 분야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대구시는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을 발판으로 동성로 일대를 문화관광의 핵심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동성로는 관광특구 지정에 따라 관

광진흥개발기금 우대금리 융자지원, 관광특구 활성화 국비지원사업 추진, 옥외광고물 허가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개공직에서의 공연도 가능해진다. 또한 최상급 호텔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조성도 가능하다.

시는 동성로 소관 기관인 중구청과 함께 동성로 관광 편의시설 개선 사업 및 다양한 관광코스 개발 등 6개 분야, 12개 단위사업, 48개 세부사업 추진으로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홍준표 시장은 "동성로는 대구의 심장이자 젊은이의 성지"라며 "다채로운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많은 사람들이 즐겨찾는 대구의 대표적인 명소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새 희망 구미시대

기회의 땅, 구미로!

구미시, 국가산단 57만평 기회발전특구 지정

[세제·재정 지원, 규제 특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반도체 집중센터에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

반도체 특화단지 및 방산 혁신클러스터 지정

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반도체 집중센터에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

반도체 특화단지 및 방산 혁신클러스터 지정

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반도체 집중센터에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

반도체 특화단지 및 방산 혁신클러스터 지정



경주시의회, 해양안전 확보 '동분서주'

후반기 경제산업위 첫 현장방문
문무대양호 탐승, 관련 보고 청취

경주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지난 19일 갑포읍에서 피서객 및 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소속 의원들은 어업 지도 단속, 해양 오염 예방, 해난사고 대응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해양복합행정인 문무대양호 관련부서로부터 운항실적 등을 보고 받고 행정선의 실제 업무와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위원들이 직접 문무대양호에 탐승해 체험했다.

이어 나정고운모래해변 오토캠핑장을 방문해 하계 피서객을 위한 지역 내

4개소(오류, 나정, 봉길, 관성) 해수욕장과 바다시청·상황실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 오토캠핑장 전기설비 및 편의시설의 불편사항 및 위험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했다.

정종문 위원장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경주를 찾는 피서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여행을 보낼 수 있도록 캠핑장 및 해수욕장 전반에 걸쳐 현장점검을 실시, 육지에서 감시활동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운영 중인 행정선의 활동상황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점검했다"며 "해양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종사자와 피서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주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상진 기자wbaf12@daum.net

역동적으로 행동하는 '의회다운 의회' 밑그림

도의회 의장단·위원장 워크숍
후반기 현안 논의·대책 강구
소통·상생과 변화·혁신 추구

경북도의회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에 걸쳐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대변인,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하는 '의장단·상임(부)위원장 워크숍'을 개최해 제12대 후반기 도의회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한 후 향후 대책을 강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워크숍에서 이날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제12대 후반기 도의회의 운영방향과 박성만 의장의 취임 일성인 소통과 상생, 변화와 혁신으로 의회다운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에 대해 의원 상호 간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12대



후반기 도의회 슬로건 공모,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소통 강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대변인 제도 운영,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한 의원 역량강화 연수의 내실있는 추진,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도민 의견 반영 등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박성만 의장은 "도의회는 도민의 성원과 지지라는 바람을 동력으로 움직이는 배라고 생각한다. 도민의 뜻이 도의회의 방향타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후반기 도의회 운영에 대해 발전적 방안을 제시

해 준 의원님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후반기 도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으로 행동하는 의회, 의회다운 의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임미애, 지방선거제도 개혁 필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경주지역위원회는 지난 19일 경주웨딩파티엘에서 임미애 국회의원 강연회 및 당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채 해병 1주기 추모식을 겸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한영태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전 도의원, 시의원 및 당원들이 참석했다. 결의대회에서는 故 채 해병 1주기 추모식과 규탄 발언을 시작으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을 요구했다.

임미애 의원은 현 정부의 상황 및 지방선거제도 개혁과 해결 방안 등에



강연을 했다. 손동현 기자dogh0311@naver.com

영주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중양초 민주시민 리더십 강화

영주시의회는 지난 18일 '2024년도 제1회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했다.

올해 첫 교실은 중양초등학교 6학년 1반 24명의 학생과 담당교사 1명과 진행, 실제 의회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을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리더십 및 토론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날 △입교식 △1일 청소년의원 선서 △의정선거 △안건발표 및 찬반토론 △안건결론 △퀴즈타임 △의원님과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고 프로그램에 필요한 체험활동 책자는 의회에서 제공, 학생들이 처리한 안건은 △영주시 학생 버스비 무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이다.

김병기 의장은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여성 기자bk01410@naver.com

영주시, 중앙정부와 '합심'... 지역 살리는 든든한 파트너로

지역발전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
기재·국토·산업·중기부 등 참여
임종득 "국비 확보 위해 힘 결집"

영주시는 지난 18일 세종시에서 임종득 국회의원, 영주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영주시에서는 박남서 시장을 비롯한 국장급 간부 공무원 등 12명이 참석했으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 부처 소속 영주 공무원 15명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박남서 시장은 △영주담 관광단지 조성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건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



단지 조성 △국도28호선 대체우회도로(적동-상광) 건설 △영주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 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박남서 시장은 "임종득 국회의원,

중앙부처 영주 공무원과 함께 영주의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면서 "영주 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적극 힘을 모아달라"라고 말했다. 임종득 국회의원은 "열악한 지방재

정 환경에서 지속적이고 탄력성 있게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영주 사랑이라는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힘을 합치자"라고 말했다.

향우 공직자 모임 회장인 기획재정부 조만희 소득법인세정책관은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늘 고향에 있다"며 "고향 발전을 위해 영주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매분기 향우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향우 공무원은 물론 출향인들에 대한 교류협력의 기회 및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정 발전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공고히 구축할 것을 밝혔다. 윤여성 기자bk01410@naver.com

성주군의회, 11일간의 여정 마무리... 추경예산 감액 조정

성주군의회는 이달 9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제28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성주군의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처음으로 개최된 회기로 첫날인 9일에는 개원 2주년을 겸한 후반기 의장단 취임 행사를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구교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 대응 방안을 긍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10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기정예산 대비 333

억원 증액된 6417억원 규모의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해 일반회계 세출예산 10억원을 감액 조정하며 최후 마무리했다.

도회제 의장은 "후반기 의회의 첫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해 준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최근 예측하기 힘든 이상기후가 계속되는 가운데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집행부 견제·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이 충실하며 군정의 동반자로서 협력해 의회가 가장 의회다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장으로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일호 기자hoyaf1515@daum.net

경상투데이 캠페인

저출산 극복

경북형 새날봄

<p>조기퇴근 돌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기 단축 근무 동참(MOU) 근로자 임금 보전 각종 지원사업 우대 및 환경개선사업 시행 	<p>학교 돌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최초 교육청·도협업모델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 AI 기반 돌봄 순환버스 운영 돌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p>심야 돌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돌봄 서비스 24시 어린이집 아픈 아이 긴급 돌봄 24시 응급치치 편의점
--	---	---

▶ 온종일 안전 돌봄 시스템 구축 ◀

저출산 극복에 경주시 골프협회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나눔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힘 보태고파”

백억현 미조리장갑(주) 대표
2천만원 상당 구호물품 기부

경북도는 지난 19일 도지사 접견실에서 미조리장갑(주)과 함께 재해구호 물품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미조리장갑(주)은 집중 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지역 재해구호를 위해 써달라고 장갑, 장화 등 2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전달식에서 백억현 대표는 “얼마 되지 않은 재해구호 물품이지만 재해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과 함께 나눔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싶어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되는 물품은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전달돼 이달 6일부터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본 이재민과 현장 복구 종사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미조리장갑(주)은 철곡군에 있으며 산업용 장갑, 장화 등 안전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지난 2022년 3월 윤진 산발피해 복구를 위해 900만원 상당의 장갑을 기부한 바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호우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도움을 주신 백억현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보내주신 귀중한 장갑 등 구호 물품은 적십자사에 맡겨 필요한 시·군으로 전달해 유용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안동소주 주병 新디자인 개발... 11월 첫선

안동 정체성 살린 주병 개발 착수
고급술 이미지·품질 고급화 부각

경북도는 지난 19일 안동수산물도매시장 회의실에서 행정, 업체, 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소주의 정체성을 살린 트렌디한 디자인의 공동주병 개발을 위한 TF회의(팀장 박찬국 농식품유통과장)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안동소주 BI 개발 및 브랜드마스터플랜 수립 착수 보고회 후 세 번째로 진행되는 전문가 간담회로 공동주병 시안 공개와 주병 디자인에 대한 업체의 진지한 의견이 제시됐다. 주병은 전통적 도자기 병의 인식을 타파하고 글로벌 소비자를 겨냥해 친근하고 선비의 기개를 표현할 수 있는 독창적인 외관으로 750년 음식문화 유산 안동소주의 우수성을 부각해 이목 집중되는 디자인으로 제작된다. 개발된 공동주병은 ‘안동소주 도지사 품질인증’ 규격에 맞는 원료, 숙성도, 도수 등 엄격한 기준을 거쳐 통과된

품질의 술만을 병입할 예정으로 고급술 이미지 부각과 품질 고급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 세계적 명주 도약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간담회에서 안동소주 공동주병의 최종 디자인이 확정되면 BI(Brand Identity)를 적용해 오는 11월경 공개해 세계인들에게 프리미엄 K-위스키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3월 업체, 대학,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안동소주 세계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 품질인증 기준 마련, 수출 확대 MOU 및 해외시장 개척 활동, 세계 최대 독일 프로 바인 B2B 주류 전문 박람회 참가, 지자체 최초 독립 홍보관 운영 등 세계적 명주로 도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안동소주 매출액은 지난해 190억원으로 2022년 140억원 대비 36% 성장했으며 그 중 수출액은 2022년 6억 원에서 2023년 8억원으로 2억원 증가했고 오는 2026년까지 수출 40억원 목표로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도, 지방공무원 필기 시험 합격자 1378명 발표

20개 직렬 31개 직류 대상 7524명 필기 시험 치뤄 응시율 75.5% 기록
2030 지원 비중 가장 多... 자율복장 면접으로 수험생 편의 제공 기여

경북도는 지난달 22일 치러진 제1회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필기 합격자 1378명을 경북도 및 시·군 단위로 발표했다. 이번 공개경쟁 임용시험은 행정 9급 등 20개 직렬 31개 직류를 대상으로 9963명이 지원해 21개 시험장, 473개 시험실에서 7524명이 응시(평균 응시율 75.5%)한 가운데 실시됐다.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행정직렬 합격선은 경북도의회 89.0점, 구미시의회와 영천시가 88.0점이었으며 고

령군 간호 직렬 합격선은 96.0점으로 최고점을 나타냈다.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9.9세이며 19세-24세는 97명(7%), 25세-30세가 682명(49%)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435명(32%), 40대 138명(10%), 50대 26명(2%)으로 분석됐다. 여성 합격자는 전체 합격자의 51%인 708명이었으며 어느 한쪽 성별의 합격자가 합격 예정 인원의 30% 미만일 때 해당 성별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해 남성 11

명이 추가 합격했다. 또한 118명을 선발하는 장애인 구분모집에는 15명이, 39명을 선발하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에는 28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자세한 합격선과 개인별 합격여부는 경북도 누리집(www.gb.go.kr) 시험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앞으로 필기 합격자 등록 서류 접수와 인성 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오는 9월 2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특히 면접시험은 다음달 5일부터 26일까지 15일 동안 필기시험 합격자 중 서류적격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도는 무더위가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에 면접시험이 치러지는 것을 고려해 수험생에게 간편한 자율복장으

로 올 것을 권장했다. 도 관계자는 자율복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창의적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여름 정장 마련을 위한 경제적 비용 등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덧붙여 개인별 면접일시와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고 면접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박성수 도 안전행정실장은 “수험생들이 더운 시기에 면접을 치르는 것만으로도 긴장되고 힘든데 정장으로 인해 더 부담스러울 것 같아 자율복장을 권고했다”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경북도와 시·군에 이바지할 인재를 선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적극행정 힘쓴 안승완 경북교육청 주무관, 총리 표창 ‘영예’



올해 287억 예산 절감 이바지
‘학교시설 수선 주기 기준’ 마련
경북교육청은 인사혁신처가 시행한 ‘제4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에서 시·도교육청 최초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안승완 시설과 주무관(46)은 20년간 시설 분야의 전문기술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효율적인 시설 투자를 위한 학교 시설의 수선 주기를 연구, 올해 본예산 편성 기준 287억원의 예산 절감에 이바

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시설 분야의 연구를 바탕으로 ‘경북도교육청 학교시설 수선 주기 기준’(경북도교육청 고시 제2023-7호(2023년 7월 12일))을 마련하고 시설 투자와 수선 주기를 연계하기 위해 예산편성 단가를 전부 개정해 예산편성에 적용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에 우수사례로 전파돼 활용되고 있으며 육군훈련소 등 군부대에 서도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북교육청은 안승완 주무관에게 정부포상 수여 기준에 따라

국무총리 표창을 전수하고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의거 1호봉 특별승급의 인사상 혜택도 부여했다. 안승완 주무관은 수상 소감을 통해 “우선 수상 자체의 기쁨도 크지만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얻은 부분이 가장 기쁘다”는 말과 함께 “모든 학생이 수준 높은 시설 환경에서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더욱 우대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돌봄공백 없게 대학생 뭉쳤다

경북도, 아이돌봄 서포터즈 발족

경북도는 22일부터 대학생 아이돌봄 서포터즈 69명을 선발해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가정을 대상으로 돌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대학생 아이돌봄 서포터즈는 대구·경북지역 대학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간호학과 등 아동 관련학과 2학년 이상의 대학생 중 대학에서 추천받은 자로 인·적성검사, 면접, 사전 필수교육 등을 거친 후 돌봄 활동을 하게 된다. 경북도는 ‘저출생과 전생 100대 실행 과제’ 중 하나로 돌봄 공백 해소와 지역 인재 활용을 위해 ‘대학생 아이돌봄 서포터즈’를 기획하고 지난 5월 대구·



경북 지역 10개 대학과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도는 경제적인 이유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최대 시간당 1만1630원의 90-100%까지 지원한다.

이번 돌봄 활동에 선발된 대학생 서포터즈들은 지난 10일과 12일 안동과 구미에서 아동 안전관리 교육, 유아·아동 돌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현재 활동하는 아이돌봄비와 함께 현장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이들은 22일부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북도는 대학생 아이돌봄 서포터즈 운영으로 돌봄 공급 인력의 다양화와 지역이 함께 돌보는 공동 돌봄 토대를 마련하고, 유아교육 관련 대학생들에게는 사전 경험을 제공해 사명감과 자신감을 성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칠곡보 야외물놀이장, 주한미군에 '인기만점' 경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성인기준 6천원 '합리적 가격' 차광막·피크닉존·푸드존 등 다양한 부대시설 갖춰 '눈길'

“칠곡보 야외물놀이장은 온 가족이 이용할 수 있고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주한미군 제19지원사령부 러셀(Russel) 소령과 오란티아(Orrantia) 군무원의 가족들이 지난 20일 칠곡군 약목면 칠곡보 야외물놀이장을 찾아 물놀이 삼매경에 빠졌다.

러셀 소령은 이날 전막 밑에 자리를 잡고 아들과 물놀이장에 마련된 다양한 시설물을 이용하며 무더위를 날려 버렸다. 그는 성인 기준으로 6000원(칠곡군민 3000원)에 물놀이장의 모든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자 놀라는 눈치였다.



전국에서 세 번째 큰 규모인 칠곡보 야외물놀이장이 합리적인 가격과 다양한 부대시설로 인해 칠곡군민은 물론 인근 대도시에서 많은 이용객이 찾고 있다. 15만2000㎡ 규모의 축구장 2개 크기로 풀장 면적이 3910㎡에 달해 33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야외 물놀이장이다.

풀장에는 성인·유수풀을 비롯해 어

린이 및 유아풀과 워터슬라이드, 에어바운스 등 각종 놀이시설이 마련돼 있어 어린이와 유아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차광막과 테이블, 피크닉존, 매점, 푸드존,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다음 달 25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일 없이 운영된다. 입장 시 복장

제한은 없으나 수영모와 물놀이용 신발은 착용해야 한다. 다만 키 140cm 미만 어린이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 안전 장비와 물놀이용품은 수영장 내 매점에서 빌릴 수 있다.

이용요금은 성인(13세 이상) 6000원, 어린이(3-12세) 4000원이며 2세 유아는 무료다. 칠곡군민과 국가 유공

자, 장애인, 차상위 계층 이용료는 50% 할인된다.

러셀 소령은 “한국의 여름은 덥고 습해서 미국인들도 견디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라며 “미국에서는 온 가족이 부담 없는 가격으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없다. 앞으로도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을 자주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송홍달 기자song031700@naver.com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까지 26일까지 신청, 100명 대상

경주시는 사회적 약자의 심신재활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 약자 100명에게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21일 경주시에 따르면 반려동물 치료비, 수술, 검진, 접종 등으로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한다. 단 사료비 및 각종 용품비 등 진료와 관련 없는 비용은 제외된다.

대상 동물은 개, 고양이 등이며 사업 대상자 본인 명의로 등록된 동물만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경주시에 주소를 둔 중증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축산담당팀으로 방문 접



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그들이 양육하는 반려동물의 삶 만족도까지 높아질 것”이라며 “신청기간 내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손동현 기자dohg0311@naver.com

드론 공동방제로 벼 병해충 '썩~' 없앤다

김천농기센터 사업 농가 큰 호응

김천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0일 전후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인해 지역 내 농경지 침수 피해를 본 중심지역을 위주로 드론 활용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을 선제적으로 진행해 농가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천시에서는 드론 활용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으로 지난 1일부터 아포읍, 개령면, 감문면 등 벼 주산단지 중심지로 1242ha 규모로 드론을 활용

한 공동방제를 하고 있다.

또한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벼 병해충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농가에서는 수시 예찰을 통해 병해충 방제에 특별히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하고 향후 병해충 발생과 쓰러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삭거름을 줄 때 질소비료를 줄이고(10a 기준 질소 2kg 이내) 모낸 후 45일이 지난 논은 중간 물떼기와 논물 걸러대기를 연속적으로 꼭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광수 기자kgs5149@naver.com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질병 진단·관리 능력 '엄지척'

농축산부 질병 진단능력 평가 8개 전 항목 기준 '적합' 판정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전국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 가축질병 진단능력 정도관리 조사'에서 8개 평가 항목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가축질병 진단능력 정도관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해마다 전국의 70개소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기관을 대상으로 가축질병 진단기술 향상과 검사법 표준화를 위해 실시하는 평가제도이다. 평가대상은 전국 시·도 가축방역기관 46개소와 민간기관 14개소 및 대학교 10개소로 총 70개 기관이며 평가항목은 소 브루셀라병 2종,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유행성설사, 닭 뉴캐슬병 2종, 기금티푸스, 병리진단으로 총 8개 항목이다.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는 가축질병 진단능력을 검증하고, 정확한 질병 진단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응하고자 해마다 평가에 임하고 있다.

평가 결과 병리진단 등 8개 전 항목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우수한 가축질병

진단능력 보유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신상희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관리 조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문 가축질병 진단기관으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질병진단 서비스 제공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예천군 맑은물사업소, 시설물 집중 점검

정수장·공공하수처리장 대상 강상기 부군수 직접 나서 확인

예천군 맑은물사업소는 지난 18일 예천정수장과 예천공공하수처리장 시설물 집중 점검에 나섰다. 이날 점검에는 강상기 부군수가 함께 정수장의 주요 공정별 시설 안전성과 기계설비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했다.

특히 긴급상황 발생 시 수질개선방안 및 신속대응체계 등을 확인하고 공공하수처리장의 운영상태를 확인하며 주요 시설물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강상기 부군수는 “철저한 점검과 관리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생활하수처리에서 오는 불편함을 최소화해 달라”며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울릉, 응급의료 종사자 자살예방교육 '힘'

울릉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16일, 18일 협력응급의료기관(울릉군보건의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관리 교육' 및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교육은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 시도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는 교육과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인증 프로그램 '보고, 듣고, 말하기' 교육으

로 진행됐으며 교육을 이수한 직원들은 울릉군 생명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맡게 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자살예방교육을 통해 나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동료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gst3000@naver.com

한울5호기, 계획예방 정비 착수... 70일간

법정검사·적합성 확인 후 재개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이하 한울본부)는 “한울5호기(가압경수로형, 100만kWh급)가 지난 19일 오전 10시에 발전을 정지하고 약 70일간의 일정으로 제14차 계획예방정비에 착수했다”라고 밝혔다.

한울5호기는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 연료 인출 및 재장전, 원자력안전법과 전기사업법에 따른 법정검사, 발전설비 점검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각종 법정검사와 규제기관의 적합성 확인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가동 승인을 받아 오는 9월 중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다.

박노환 기자shghks70@naver.com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팀” 제070604-중-326호

조루, 발기부전, 전립선 질환을 한방으로 치료한다

장정불로단(壯精不老丹), 하루 2번 간편복용으로 중년 남성의 고민 해결

고개 숙인 중년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조루·발기부전·전립선 질환·만성피로 등 여러 가지 남성 질환을 위한 한방 치료법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어 화제다. 강남 논현동에 위치한 강남행복한의원에서 처방하는 장정불로단이 바로 그것.

장정불로단은 <만병회춘> 고전에 나온 연령고본단(延齡固本丹) 처방을 가감하여 산수유, 구기자, 맥문동, 천문동, 복분자, 파고지, 숙지황 등 20여 가지의 약재로 처방한 약이다. 이 약은 중년 이후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다스리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소모된 정기신혈 영역의 원천을 보충해 준다.

이 원장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와 인스턴트식품의 섭취, 운동 부족, 흡연과 음주 등으로 중년의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며 “매사에 의욕이 없고, 피로와 권태를 호소하며, 성적 자신감까지 잃은 남성에게 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도의 정신활동으로 스트레스와 만성피로를 겪고 있는 전문직 남성들에게도 입소문을 통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소모된 기혈진액을 보충, 활기차고 건강하게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세포의 생리 활성이 떨어지면서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기능이 약해진다. 이에 따라 신체조직과 장기의 전반적인 신진대사기능이 저하되고, 피부와 모발 및 근육은 건조해지며, 뼈도 성글어진다.

혈진액을 보충해줌으로써 세포와 조직에 생기를 불어 넣고 엔진을 다시 가동시키는 것이다. 장정불로단을 복용 후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만성피로와 성욕감퇴의 경우 몸이 가벼워지고 의욕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며, 발기부전 또한 개선된 사례가 많다. 특히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현대 남성들의 경우, 생기와 활력을 되찾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만성피로, 발기부전, 조루, 성욕감퇴, 노화 등에 효과적

한마디로 장정불로단은 우리 몸 전체에 생기와 원기를 불어넣는 한방 보양제라고 할 수 있다. 만성피로에 지친 남성, 발기 부전이나 조루, 정력 부족을 호소하는 남성에게 효과가 있

강남행복한의원 ☎ 02-512-6510
www.kangnamh.co.kr

경주시, 한수원 24조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수주 '일등공신'

주낙영 시장 원전 세일즈 힘 보태 트레비치시와 우호의향서 체결 현장시찰 원전 안전·우수성 확인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와 테블린 지역에 1000MW(메가와트)급 원전 최대 4기를 짓는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하기까지 경주시의 역할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주시에 따르면 주낙영 시장은 지난 17일 K-원전이 건설될 체코 트레비치 시장에 축하 편지를 보냈다.

체코 트레비치시는 경주시의 해외 우호도시로 지난해 11월 파벨 파찰 트레비치 시장이 경주를 직접 찾았을 만큼 두 도시는 매우 각별한 사이이다.

경주에 본사를 둔 한수원이 해외 원전 사업을 따낸 것은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이다.



체코 정부에 따르면 신규 원전 2기에 대해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됐다. 나머지 2기는 체코 정부와 발주사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예상 사업비는 원전 1기당 2000억코루나(약 12조 원) 규모다.

이번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 결정에는 경주시의 역할도 컸다. 지난해 3월, 체코 원전 수주를 놓고 한수원이 프랑스 EDF,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치열한 경쟁을 벌일 당시 주낙영 시장은 체코로 날아가 트레비치시와 우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하며 원전 수주에 힘을 보탤다. 원전 소재 지자체의 친밀도가 신규 원전 사업자 선정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 K-원전의 안정성을 대한민국의 원전 소재지 시장이 직접 찾아 설명함으로써 당시 체코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다.

주낙영 시장이 체코를 다녀간 후 8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파벨 파찰 체코 트레비치 시장이 답방 형식으로 경주를 방문했다. 당시 파벨 시장은 6박 7일간 국내에 머물며 경주시와의 교류

확대를 논의하는 한편 한수원 및 원전 시설을 시찰하며 K-원전의 안정성과 우수성을 직접 확인했다.

파벨 파찰 시장은 경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K-원전 수주에 대한 강력한 희망 의사를 밝기도 했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는 트레비치와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추진하며 체코에 K-원전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그날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더 친절하고 깨끗한 '착한가격업소' 눈길

시, 지역 업소 서비스 교육·간담회 고객 응대 요령·식중독 예방 당부

경주시가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지역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18일 청결·친절서비스 교육 및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착한가격업소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청결·친절서비스 교육으로 고객 응대 요령과 식중독 예방 안내 수칙 등을 전달하며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또 착한가격업소 물품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등의 구체적인 지원 사업도 설명했다. 특히 휴가철 물

가안정 분위기 조성,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방안, 착한가격업소 업주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착한가격업소란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지역 평균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우수한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현재 총 32개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현재 국내 9개 신용카드(신한, 롯데, 비씨, 삼성,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를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결제 시 1회당 2000원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더불어 배달앱에 입점한 착한가격업소에서 주문 시 건당 배달료 2000원 할인쿠폰이 제공된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활짝 핀 여름 꽃밭, 관광객 향해 '손짓'

황남고분군·침성대 일대 등 장관 연출 동궁과 월지 연꽃단지 사진명소 각광

천년고도 경주 도심지에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양한 꽃들이 만발하면서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1일 경주시에 따르면 동궁과 월지 부근, 황남고분군, 침성대 일대 등에 연꽃을 비롯해 사루비아, 페튜니아, 일일초, 플록스, 메리골드 등 단연생 부터 다년생 10종이 만개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제공과 함께 경주 도심지에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특히 식재된 화초의 대부분은 경주화훼협회(8호)에서 생산된 화초를 사용하고 있어 지역 화훼산업 육성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동궁과 월지 인근 3만8200㎡의 대규모 연



꽃단지에도 다양한 품종의 연꽃이 만개해 시민, 관광객, 가족, 연인 등 힐링 공간으로 또는 추억에 남는 사진 촬영

지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전국에서 경주의 연꽃을 사진에 담으려는 전문 작가들의 발걸음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

에 시에서는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산책로 데크 및 정자, 화장실 등 편의시설과 경관조명을 설치해 인근 동궁과 월지와 더불어 아름다운 야경을 연출하는 등 사적지와 연계한 아름다운 여름 풍경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로 우리나라 대표 관광도시 경주가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으며 특히 연꽃단지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힐링명소로 소개되고 있고 침성대 주변 등에 아름다운 꽃단지 조성으로 지역 화훼농가 소득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경규 기자seoul141@hanmail.net



재외동포 청소년들, 천년고도를 경험하다

7·8월 총 6회 걸쳐 300명씩 방문 달빛기행·사적지 답사 등 실시

75개국 재외동포 청소년 1800여명이 국내 역사문화 체험을 위해 경주를 방문한다.

21일 경주시에 따르면 차세대 재외동포들에게 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가 '2024년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모국연수 프로그램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8월 12일까지 총 6회에 걸쳐 300여명씩 6박 7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이중 2박 3일을 경주에서 보낸다.

1회차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 동안 경주에 머물며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경험했다. 이들은 연수 첫날인 17일 월경교와 침성대 일대 달빛기행

을 하며 천년 역사를 품은 경주의 밤을 누렸다. 둘째 날은 불국사 및 석굴암, 대릉원 등을 대상으로 문화관광해설사의 안내를 들으며 경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배웠다. 이어 저녁 시간에는 코모도호텔에서 청소년의 케이팝 댄스 공연, 별반남장 등 경주시와 경주문화유산활용연구원이 마련한 환영행사에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15가지 테마별 신라복을 입고 신라의 역사와 실화를 직접 체험하는 실크로드 패션쇼 프로그램에 동참했다. 특히 환영 행사에 지역 고려인 청소년도 함께해 참가자들과 문화교류를 하며 유대감을 형성하는 시간도 보냈다.

주낙영 시장은 "오늘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한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 속의 미래 인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지역 미술시장 활력 불어넣는 'G-아트마켓' 24일 개막

경주예술의전당서 28일까지 전시·판로 개척의 장 펼쳐져

'2024 아트플랫폼 G-아트마켓'이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경주예술의전당 앞천미술관에서 열린다. 아트마켓은 지역 미술시장의 작품 거래 활성화 및 참여 작가와 관람객에게 원작을 감상

하고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미술작품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오는 9월까지 진행되는 '2024 아트플랫폼'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아트마켓은 사업비 1억2000만원이 투입된다. 개막식은 오는 24일 오후 5시에 개최되며 드로잉 퍼포먼스 특별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G-아트마켓' 개막에 앞서 지난날

10일부터 이달 3일까지 부스 작가 공모를 진행해 지역 작가 45명을 선정했다.

또 같은 기간 39세 이하 청년작가 공모도 별도로 진행해 지역 신진 작가 5명의 등용문도 열었다. 경주시는 이번 아트마켓을 통해 지역 미술시장을 활성화하고 예술인들의 작품 홍보와 판로 개척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대 행사로는 50만원 이하의 작품을 판매하는 '특별전', 인기 복합문화공간과 함께하는 '플레이스C 특별전' 등도 열린다.

또 민화 체험존과 도슨트 프로그램 진행으로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최영조 경주미술협회장은 "이번 아트마켓은 경주지역의 미술 유통시장을 활성화하고 미술품 판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경규 기자seoul141@hanmail.net



어린이보호구역
SCHOOL ZONE

어린이 보호

주정차금지

2021년 10월 2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휴일·공휴일 상관없이 매일 오전 8시~오후 8시
1분만 정차해도 과태료 12만원(승용차 기준)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앞서는 경주



경상투데이는 불법주정차 없는 안전도시 경주 만들기에 동참합니다

‘대프리카 챌린지’ 참여하고 호텔 숙박권 얻자

시·대구문화재단·진흥원 협업 행사
내달 16일까지 SNS서 참여
행사 시작부터 곳곳 이목집중
스파크랜드·이월드·베라 등
다채로운 혜택과 경품 ‘팡팡’

대구시와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는 여름휴가 기간과 방학을 맞이해 ‘여행지’ 대구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자 지난 15일부터 오는 8월 16일까지 ‘대프리카 챌린지’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대프리카 챌린지’ 이벤트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SNS로 서로 소통하며 이번 여름을 더욱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기획됐다.

대구시의 더운 날씨를 아프리카에 비유해 만들어진 합성어 ‘대프리카’ 가시를 상징하는 단어인 만큼 이벤트 시작과 동시에 각종 SNS 채널마다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벤트 참여는 간단하다. 첫 번째 ‘릴스/사진 이벤트’는 @visitdaegu 채널을 팔로우 하고 대구시의 무더위를 이겨내는 다양한 방법을 자신의 SNS 계정에 짧은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소개한 뒤 게시글에 ‘#대프리카챌린지’, ‘@visitdaegu’를 필수 해시태그로 포함하면 된다.

이벤트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8월 16일까지 진행되며 당첨자는 8월 23일에 발표된다.

당첨자에게는 인터블로그엑스코호텔 숙박권 및 음료 이용권, 스파크랜드 레드존 자유이용권, 이월드 자유이용권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

두 번째 ‘댓글 이벤트’는 @visitdaegu에 게시된 ‘대프리카 챌린지’ 게시글에 대구시 여행지와 함께 여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을 태그해서 댓글을 작성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기간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8월 16일까지이며 당첨자는 8월 23일에 발표된다.

댓글 이벤트 당첨자에게는 베스킨라

빈스·스타벅스 쿠폰이 증정된다.

한편 해당 이벤트는 대구관광 국내의 공식 SNS 8개 채널인 인스타그램(국문·영문), 페이스북(국문·영문·일문·중문), 네이버 블로그, 웨이보(중간)에서 통합 이벤트로 진행된다.

강성길 관광본부장은 “이번 대프리카 챌린지를 통해 진정한 여름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 대구시의 여름에서 새로운 매력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대프리카 챌린지’ 관련 자세한 정보와 이벤트 참여는 대구관광 공식 SNS 채널(@visitdaegu)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대구보건대-북구청, 상생 위해 ‘맞손’

글로벌대학30 보건 인재 양성 ‘힘’

대구보건대학교는 대구시 북구청과 지난 18일 글로벌대학30 보건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남성희 총장, 배광식 구청장을 비롯해 6명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상호교류 협력을 통해 우수한 글로벌 보건의 인재를 양성하고 함께 성장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협약을 통해 지자체-대학 간 글로벌대학30 보건 인재 양성 교육의 상

호협력, 대구시 북구 주민을 위한 평생 직업교육 개발·운영과 활성화, 지·산·학 보건의료 융합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등을 약속했다.

남성희 총장은 “우리 대학은 북구청과 협력해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직업 교육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지자체와 대학 간의 협력을 통한 보건의료 분야의 융합 발전을 촉진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라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시설관리공, 드론 활용 인력 확보 ‘집중’... 업무 효율 UP

드론 조종·항공촬영 실습 교육
시설물 안전점검·홍보 등 활용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8일 공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드론 조종 및 항공촬영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드론 조종 및 항공촬영 실습 교육은 시설물 안전점검, 홍보 등 다양한 업무에서 드론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직원들의 드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공단이 보유한 드론의 활용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직원 20여명이 참여해 교육은 오전 이론 교육과 오후 실습 교육으로 나눠 진행했으며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항공법 △드론의 구조 이해 △영상촬영 및 매핑 시연 △드론



조종 및 항공촬영 실습 등으로 드론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직접 조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문기봉 이사장은 “이번 실습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드론 이해도 및 조종 능력을 키워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

한 분야에서 드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군위군, 오늘부터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군위군은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 제공을 위해 2024년 하반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해 지역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지속적, 안정적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87명의 참여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유·면 환경정비(7명) △전통시장 교동집서(2명) △삼국유사 테마파크 환경정비(12명) 등 3개 분야에서 추진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군위군민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지역공동체) 또는 70%(공공근로)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이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2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신분증, 기타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본인인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되고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군은 신청자의 재산·가구 소득, 취업취약계층 및 반복참여 여부 등을 종합 심사해 오는 8월 16일 대상자를 확정해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자격증 취득 어르신, 다도 선생님 된다

달성군, 노인일자리사업 일환 ‘어린이 다도예절교육’ 진행

달성군은 달성군어린이집연합회·달성문화원과 협력 사업인 ‘어린이 다도예절교육’ 사업을 지역 내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다도예절교육’ 사업은 달성군 맞춤형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달성시니어클럽에서 지난 5월 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교육을 통해 다도교육지도사 2급 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시니어 강사들이 도맡아 진행한다. 단순 직무에서 벗어나 전문 자격을 갖춘 어

르신들이 시니어 강사로 참여하는 이 사업은 전문성을 갖춘 신노년 일자리 사업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다.

또한 지난달 시연교육을 거쳐 이달부터 112곳의 지역 내 어린이집을 순회하며 진행되고 있는 다도예절 교육은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전수하고 어린이들의 기본예절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역사회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행동·습관·가치관·성격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예절을



익히고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인성을 가진 어린이로 자라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힘쓰고자 한다.

최재훈 군수는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확대에 더불어 전문성이 필요한 신노년

노인일자리 사업을 개발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새로운 것에 대한 배움으로 습득한 전문 지식을 근로활동을 통해 활용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장준찬 기자jongchan2114@naver.com

대구 관광 ‘한눈에’

개편된 관광안내지도 제작·배포

대구시는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 및 주요 관광지 관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구시 관광안내지도 제작·배포한다.

이번 안내지도는 국문을 포함한 다국어(영문, 일문, 중문(간체·번체)) 번역판으로 제작해 대구시의 주요 관광지, 축제·행사 현황, 먹거리 등 다양한 관광 정보 및 2024년 개편된 대구시투어 신규 노선, 서대구역을 포함한 교통정보와 해마다 개최되는 주요 축제의 기간별 정보를 수록했다.

전면에는 대구시 전도, 도시철도 노선도, 교통정보 등이 수록돼 대구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후면에는 대구 중심권의 상세 지도와 함께 중구 골목투어 소개, 각 권역별 주요 관광지 소개, 개편된 시티투어 안내, 대구시 10미 소개, 주요 축제 안내가 포함돼 있다.

또한 총 22만5000부가 제작돼 대구관광안내소, 고속도로 휴게소, 호텔, 교통거점 등 주요 관광지에 비치해 시민들에게 상시 제공될 계획이다.

또한 대구시 관광안내 홈페이지(tour.daegu.go.kr)를 통해서도 지도파일을 직접 다운받거나 직접 신청을 통한 우편 수령도 가능하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살국유사의
다도예절교육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

대구광역시 군위군

파워풀 대구와 함께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안동시, TURE-TECH 성공 개최 준비 '착착' 안전한 봉화는어축제 만들기 '사활'

소프트뱅크(주) 본사서 실무자회의 현장답사 보완사항·계획 논의 정보교환·협력관계 강화 순항 한국 최초 개최로 관심 한눈에

안동시 대표단은 오는 9월 초 개최 예정인 지역 활성화 인턴 프로그램 'TURE-TECH'의 성공 개최를 위해 소프트뱅크(주) 본사(동경)에서 최종 실무자회의를 개최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소프트뱅크(주)에서 실시하는 지역 활성화 인턴 프로그램 'TURE-TECH'는 안동시가 지난 과제 4가지에 대해 선정된 한·일 대학생 약 24명이 시를 방문 후 5일 동안 직원과 함께 현장 인터뷰와 필드워크 등을 통한 그룹과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인턴 사업이다.

프로그램 마지막 날에는 워크숍 성과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시장과의 토론회를 개최, 그 결과를 시책 제안의 해결과제로 시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



하고 5일간의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이번 회의에는 오창원 관광문화국장과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 교류협력팀장을 비롯한 실무자 5명, 소프트뱅크(주) 인사부 인사채용부 담당자 3명이 참가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6월 30일 안동시 현장답사를 통한 보완 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지난 2016년 시작한 'TURE-

TECH'를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하는 만큼 주최 측은 국경을 넘어 양국 대학생들이 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차세대를 책임지는 리더로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한·일 대학생 총 3000명 이상이 신청하는 등 참가자들도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안동시와 소프트뱅크(주)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7차

에 걸쳐 온라인 회의와 현장답사를 실시하는 등 긴밀한 정보교환과 협의를 통해 협력관계를 강화해왔다.

시 관계자는 "양국의 우수 대학생의 창의적 발상과 새로운 시각으로 안동시가 가진 고령화, 저출산, 관광객 유치 등 핵심 과제에 대한 유익한 제안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오명수 기자oms727@nate.com

위원회 심의 중에는 축제장 내 전기, 가스 시설 등에 대한 적법성 및 안전성, 주차장 및 차량 동선 등 교통 대책, 관람객 이동 및 사고 발생 시 대피 동선 등 축제장 설치 및 운영 전반의 안전계획에 대한 유관기관별 구체적인 심의 및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배진태 부군수를 비롯한 봉화경찰서, 봉화소방서, 봉화교육지원청,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봉화는어축제는 재난안전법상 안전관리조치 대상(관람객 1000명 이상, 수면에서 개최, 폭발성 물질 사용)이 되는 지역축제로서 축제 개최 전 지역위원회로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심의·의결반도체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날 배진태 부군수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축제 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봉화는어축제 기간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즐거운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을 밝혔다.

정취영 기자jhy4430@hanmail.net

문경 가은아자개시장, 로컬 기반 콘텐츠로 '경쟁력 UP'

관광형 토요장·역사문화 투어 등 다양한 이벤트로 관광객 유치 '힘'

최근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을 추진 중인 전통시장들은 로컬 기반 콘텐츠를 마련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 등 잠재고객을 유치하거나 야시장을 개설·운영하는 등 공평된 마케팅을 비롯해 시장마다 특색을 활용한 콘텐츠를 마련하며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다.

문경시 가은읍에 위치한 가은아자개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2023-2024년)을 통해 위기극복을 위한 전략으로 오는 27일부터 재정비를 마친 관광형 토요장 운영과 함께 가은 토요 역사·문화 탐방 투어와 야시장(시범운영)을 동시에 선보인다.

가은 토요 역사·문화 탐방 투어는 가은역(근대산업유산등록 문화재304호)에 이어 문경 예코월드, 100년 역사의 가은양조장(국가등록문화재706호), 가은성당을 잇는 챌린지 투어로 총 코스는 3km 이내 구간으로 운영된다.

구간마다 스탬프 도장이나 인증샷을 찍고 가은아자개시장에서 당일 소비한 영수증을 증빙하면 미션 수행이 마무리된다. 영수증과 미션지를 소지하고 토요장 운영본부에 방문하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이미 수도권에서 여행사를 통해 단체 관광객 80여명이 참가 신청을 완료했으며 오는 9월과 10월까지 앞으로 총 3차례 투어를 더 남겨두고 있다.

재개장하는 토요그린마켓은 풍성한 먹거리와 지역특산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특히 토요장을 이용하면 지역의 유명 막걸리 무한 리필 혜택을 볼 수 있어 많은 애주가에게 설렘을 전하고 있다.

같은 날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살롱드 가은 나이트' 야시장은 향후 가은 상권의 야간관광 상품화 가능성을 진단해 보기 위한 계기로 활용한다.

성운모 상인회장은 "긍정적인 이슈가 많아질수록 가은 상권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며 "고객 모두에게 보다 친절한 전통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짐을 전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예천 '한천 어린이 물놀이장' OPEN

예천군은 지난 20일 개장한 한천 어린이 물놀이장을 오는 8월 18일까지 운영한다.

물놀이장은 휴장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위치는 한천체육공원 예천교 옆이다. 입장료는 무료이고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하다.

놀이시설로는 조합놀이대, 에어바운스, 조립식수영장 등이 있으며 그늘막과 파라솔을 설치해 가족단위 이용

객을 위한 휴게공간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휴게공간에서는 음식물 취식은 가능하나 음주는 불가하며 유리병 같은 위험한 물건은 반입이 금지된다.

특히 안전한 물놀이장 운영을 위해 자외선 살균과 염소소독으로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요원과 응급치료 인력 배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학동 군수는 "지난해 수해로 인해 물놀이장 운영을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시설 복구를 완료하고 개장한다는



것이 매우 뜻깊다"면서 "군민들께서 많이 방문하셔서 한천 어린이 물놀이장이 최고의 휴가지가 되고 이와 함께

원도심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청송군수기 전국초등학생 검도대회 '성료'

전국 16개 시·도 800명 참가

청송군은 지난 20일 연례별 개인전 첫 경기를 시작으로 21일까지 이틀간 제7회 청송군수기 전국초등학생 검도대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한국초등학교검도연맹이 주최하고 청송군검도회가 주관하며 청송군, 청송군의회, 청송군체육회, 경북도검도회, (사)대한검도회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서 전국 초등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갈고닦은 노력의 결실을

선보였다.

대회는 전국 16개 시·도 800여명의 검도선수들이 참가해 전국 남학생 저·중·고학년, 여학생 개인전 및 단체전으로 구분돼 토너먼트 방식의 경기가 진행됐다.

윤경희 군수는 "여름철살 아래 개최되는 이번 대회가 우리 미래 꿈나무들이 예의 바른 검도정신을 온몸으로 느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의성, 착한가격업소 지원... 물가안정 도모

의성군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오는 11월까지 집중 발굴한다고 밝혔다.

'의성군 착한가격업소'는 지역 평균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친절하고 깨끗한 위생과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의성군이 접수 및 심사를 거쳐 지정한다.

군은 집중 발굴 기간에 접수된 업소를 대상으로 △가격 △위생 △경쟁 △정부시책 이행 여부 등을 현지실사 및 심사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 발굴은 행정안전부가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이 직접 착한가격업소를 추천하는 공모도 착한가격업소 누리집(www.goodprice.go.kr)에서 진행 중이다.

의성군은 해마다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및 재지정하고 있으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 소모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착한가격업소에서 의성사랑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충전 시 10% 포인트 적립과 함께 결제 금액의 5%를 추가 카드 포인트로 적립받을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의성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의성군청 미래산업과 지역경제팀(054-830-623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수 군수는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으로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상주시도

준비된 땅 상주!

입지, 교통, 인프라, 탁월한 미래가치까지 상주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군사수도 건설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된 군사시설 최적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군사시설 최적지 상주!

최적의 입지와 교통

국토 중심부에 위치하여 전국 2시간 이내의 접근성, 중부내륙철도 개통(예정)으로 더 빨라진 KTX역세권

원스톱 지원과 풍부한 인프라

이전사업 TF팀의 원스톱 지원과 교육, 의료, 관광, 문화, 일자리까지 부족함 없이 누리는 민군상생협력타운 건설

군사훈련 최적지

너른 평지와 저렴한 공시지가, 다양한 지형을 조화롭게 갖춰 전문적인 훈련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부지

결집된 유치 의지

법시인 유치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주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군사시설 이전 유치 홍보활동 전개

상주시
SANGJU CITY

구미시, 추경 2조1600억... 저출생 극복 '방점'

본예산 대비 1580억원 증가 中企·소상공인 안정화 집중 재해예방·피해복구에 편성

구미시가 2조1600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18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 2조20억원 대비 1580억원 7.89% 증가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본예산 1조6737억원보다 1210억원 7.23% 증가한 1조794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283억원보다 370억원 11.27% 증가한 3653억원이다. 이번 예산안은 저출생 위기극복,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지원,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대비 및 응급복구 비용,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반영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우리동네돌봄 마을조성 24억원,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 22억원, 청년월세지원 25억원, 청년신혼부부월세지원 11억원 등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해 총 17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고물가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

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복귀 투자보조사업 45억원, 구미사랑상품권 할인을 보상금 25억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15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및 이차보전 16억원 등 증액 편성했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해 찾아지는 폭우 등 각종 재난에 대비 도로 응급복구 및 정비 17억원, 재해예방응급복구 사업 4억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11억원 등 재난대비 및 응급복구 예산에 총 61억원을 편성했다.

김장호 시장은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응방안 마련과 정책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수 있는 역점사업들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31일 최종 확정된다. 박익분기자ub0104@hanmail.net



상주시-상지미래경영고, 인재 육성 '맞손'

맞춤형 교육·취업 지원 체계 구축 현장 중심형 인재 배양 적극 추진

상주시는 지난 18일 지역 특성화고인 상지미래경영고등학교와 경북형 마이스터고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북형 마이스터고는 지역기반 산업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 시·도 교육청, 산업체, 특성화고 등이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율학교이다. 상주시와 상지미래경영고등학교가 체결한 협약의 내용은 △맞춤형 교육

과정 운영 △맞춤형 취업 지원 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등이 포함됐다. 협약을 통해 상주시에서는 △보건간호과 △경영금융서비스과 △카페경영과 △부사관과 등 4개 과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형 인재 양성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강영석 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학교와의 협력 기반을 더욱 확대하고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 맞춤형 취업 지원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임찬원기자changwan12@naver.com

칠곡자봉센터, 자원봉사자 사기 높여 지역을 더 아름답게~

2000·1000·500시간 봉사자에 시간인증서·배지 수여식 진행

칠곡군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7일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차원으로 '자원봉사 시간인증서 및 배지 수여식'을 진행했다. 자원봉사는 무보수성, 공익성, 자발성, 지속성을 기본으로 하는 자원봉사의 특성상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가도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봉사자의 소진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인정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칠곡군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016년부터 자원봉사자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자원봉사시간 인증서 및 배지'를 수여하고 있다. 이날 배지를 수여받은 봉사자는 2000시간 이상 11명, 1000시간 이상 15명, 500시간 이상 23명 등이다. 윤노영 칠곡군 관광경제국 새마을체육과장은 "오늘 수상한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칠곡군 자원봉사센터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송홍달기자sonh031700@naver.com



500시간 이상 23명 등이다. 윤노영 칠곡군 관광경제국 새마을체육과장은 "오늘 수상한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칠곡군 자원봉사센터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송홍달기자sonh031700@naver.com



NH투자증권, 어르신들의 여름나기 '응원'

고령군에 냉장고 38대 기탁 NH투자증권에서 지난 19일 고령군청을 방문해 냉장고(852L) 38대를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된 냉장고는 농촌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된 냉장고가 비치된 지역 내 경로당과 마을회관 38개소에 전달될 예정이다. NH투자증권은 ESG(환경·책임·투명경영) 기업 경영을 추구하기 위해 사회공헌단을 두고 있으며 지난 2019년부터 농촌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2021년까지는 1260대의 전기레인지(인덕션)를 기탁했고 2022년부터

는 현재까지 냉장고를 기부해 오고 있다. 또한 사회공헌단 내에 37개의 사내 봉사단을 운영하며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기탁식에 참석한 김용기 부사장은 "농촌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해 고령군의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냉장고를 기탁하게 돼 기쁘게 생각하고 어르신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어 더 보람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남철 군수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감동의 큰 박수를 드리고 앞으로 도 지역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김일호기자hoyai1515@daum.net

성주군, 산사태 피해 예방에 만전

현장 점검·주민 사전 대피 홍보 산사태대책상황실 24시간 가동

성주군은 경북도 산사태위기경보가 '경계' 발령에 따라 산사태 인명피해 우려지·산사태대피소 현장 점검 및 주민 사전 대피 홍보를 실시했다. 산사태 인명피해우려지는 산사태 위험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대피가 필요한 곳으로 지속된 호우에 위험 여부를 현장 확인하고 마을이장 및 주민을

찾아 주민대피 명령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호우 시 통행이 어려 것으로 우려되는 임도 11개 구간에 대해 사전 출입통제하고 산사태 우려 신고지 5개소에 방수포 설치 등 응급조치를 완료했다. 이병환 군수는 "현재 산사태대책상황실을 24시간 가동 중으로 산사태현장 예방단 및 입도관리원 등 가용인원을 최대한 활용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일호기자hoyai1515@daum.net

군산시민에게 '김천의 맛' 알리다

시, 농산물 홍보·판촉 행사

김천시는 지난 18일 자매도시인 군산시를 방문해 농산물 홍보·판촉 행사를 진행했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이번 행사에서는 시청, 근대역사박물관 주차장 2곳에서 사전 주문한 과일을 시민들에게 배부했고 군산지역 로컬푸드직매장 5곳에는 김천 포도, 자두, 복숭아를 만나볼 수 있는 판촉 행사를 18일부터 하고 있다. 이번 홍보·판촉 행사는 지난해와 달

리 사전 주문방식과 로컬푸드직매장의 판촉 행사로 진행해 구매 기회를 농민 시민들에게 김천의 우수한 품질의 과일을 맛볼 기회가 늘어나게 됐다. 김천의 특산물인 포도(거봉, 샤인머스켓), 자두, 복숭아를 판매했으며 사전 주문액은 총 5100여만원에 달한다. 정한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다양한 교류 행사를 통한 군산시와 김천시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kgs5149@naver.com

세한금속주방

대표 김효철

경주시 유림로 5번길 133

☎ 054-749-7979

경주시수협 황성지점

지점장 김윤정

경주시 황성로 11

☎ 054-771-0604

KB손해보험 경주지점

조봉래

경주시 화랑로 125 5층

☎ 010-3506-2781

경산시장, 신성장 동력 위한 국비 확보 '총력' 울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사업 '속도'

중앙부처 방문, 현안 지원 건의 소상공인·생활안전 사업 등 방점 총사업비 미반영분 추가 당부 재난안전 특교세 등 확대 요청

조현일 경산시장은 지난 18일 경산의 미래 100년 신성장 동력을 위한 내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와 지방교부세 확대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 지역 현안사업에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각 부처에서 제출한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 대한 기재부 1차 심의결과 부처안 미반영예산 사업과 국비 증액 요구, 계속사업 총사업비 조정 등에 중점을 두고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비롯한 조용범 사회예산심의관, 오상우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박정민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등을 만



나 주요 현안 및 역점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과 내년도 최종 정부예산안 반영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사업으로는 △미래차 첨단 ECU산업 생태계 활성화 △제조가공 도시형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경산시 위생매립장(2단계) 증설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동서지구)

△문천지1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소상공인 특화지원과 시민 생활안전, 미래 콘텐츠 산업 육성 관련 사업이다.
특히 계속사업 중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구간 내 국도 접속부 선형변경 설계비, 문화재 출연에 따른 노선변경 보상비 등 총사업비 미반영분에 대

한 국비 추가 지원을 건의했다.

시는 기재부 심의가 오는 8월까지 4차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부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9월 3일까지 예산 반영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장을 찾아가 교통사고 위험 해소와 집중호우 재해예방 등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지원과 보통교부세 보정수요 항목 개선을 통한 지방교부세 확대 지원을 요청했다.

조현일 시장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세수감소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이번 중앙부처 방문으로 지역현안 사업과 미래 전략사업들이 최대한 정부예산안에 반영돼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13개 시장·군수협력체 회의 참석 에타조사업제 지원 특별법 발의

울진군은 지난 17일 충북 증평군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위해 개최된 제9회 13개 자치단체 시장·군수 협력체 회의에 자문위원, 용역사 등 100여명과 함께 참석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은 충남(서산·당진·예산·아산·천안), 충북(청주·증평·괴산), 경북(문경·예천·영주·봉화·울진) 3개 도, 13개 시·군을 연결하는 총연장 330km, 총사업비 7조 원(추정)의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허리 경제권인 서해안 신 산업벨트와 동해안 관광벨트를 연결해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날 회의에는 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에 이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향후 사업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번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지원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함께 대표 발의해 힘을 보태고 있다.

손병복 군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은 허리 경제권으로 중부권 지역의 교통 연계성 강화와 균형있는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사업이다"라며 "13개 시·군과 함께 결의를 다짐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성주 기자ksj09102@naver.com

영덕군, 한동대와 '합심'... 글로벌대학 선정 교두보 마련

경북도·환동해 4개 도시 동창 지역 혁신원 설치 협력 등 박차

경북도와 영덕군을 포함한 4개 지자체는 지난 18일 환동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동대학교와 글로벌컬대학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글로벌컬대학에서 글로벌은 세계화를 뜻하는 글로벌(Global)과 지역을 뜻하는 로컬(Loca)의 합성어로 글로벌컬대학은 지역과 대학 간의 상생을 통해 성과 창출과 대학 육성을 이끄는 교육부의 혁신 정책사업이다.

교육부는 오는 2026년까지 비수도권 대학 30여 곳을 평가해 글로벌컬대학으로 지정하고 일정 기간 지원금과 규제 혁신 우선 적용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이번 협약식에는 경북도와 환동해 지역의 대표적인 해양도시인 영덕군, 포항시, 울진군, 울릉군이 참여해 지역대학인 한동대와 글로벌컬대학 선정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환동해 지역 현안 공동 해결 △지역 내 환동해 지역 혁신원 설치 협력 △지역의 교육·문화와 일자리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 구축 △지역 균형발전과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협력 지원 등이다.

김광열 군수는 "한동대학교가 지역과 대학의 새로운 연결점인 글로벌컬대학으로 지정돼 현재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의 중심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박노환 기자shghks70@naver.com

울릉우체국, 4년 만에 재개

울릉우체국은 주민의 편의 향상을 위해 울릉군과 '우편물 매일발송'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2020년 2월 중단됐던 '우편물 매일발송'을 재개했다.

지난 2020년 2월 선프라워호가 선령 만기로 운항을 종료하면서 해당 선박을 이용했던 울릉우체국의 '우편물 매일발송'도 함께 중단됐다.

이때부터 우편물이나 택배가 화물선 운항에 맞춰 격일(화·목·토요일)에만 발송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으며 특히 봄 철특산물 수확 시기에는 그 불편이 가중됐다.

남한권 군수가 취임 후 주민들 불편

해소를 위해 내건 일일택배 공약 이행 노력으로 지난해 3월부터 건영택배, 한진택배 등 민간택배사가 울릉크루즈를 통해 일일택배를 시작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됐다.

울릉우체국과 울릉군청은 육지로 당일 운송이 가능한 엘도라도익스프레스호의 취항에 따라 우편물 매일발송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고 이에 결실을 맺어 '우편물 매일발송'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우편물 매일발송 재개로 특산물 및 신선제품들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수송할 수 있게 돼 주민 편의 향상이 되고 나아가 주민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gst3000@naver.com

청도군, 오프라인 임업인 필수교육 '호응'

청도군은 지난 18일 임업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임업직불금 등록대상자 중 온라인 교육 이수가 어려운 임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임업·산림의 공익적 기능 △임업직불금 개념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의무준수사항 △부정수급 예방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낮은 임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

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22년 10월부터 시행됐으며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해당 교육을 의무적으로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대상자 확정 기간인 오는 9월 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 지급 금액에서 10%가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받게 된다.

김하수 군수는 "임업직불제는 임업 경영의 발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임업인들이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artmong0@naver.com

영천,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계획 수립

3대 추진 전략 9개 과제 도출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에 발맞춰 영천시가 '영천시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지난 18일 온라인 회의로 김진현 부시장을 비롯해 데이터 활용 부서 담당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

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데이터에 기반한 시민의 삶 현안 중심 데이터서비스 혁신을 통해 디지털 행정 완성을 위한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으로 △5개월간 데이터 현황과 대내외 환경 분석 △실·과·소 업무담당자 인터뷰

△중간보고회 등의 과정을 거쳐 향후 3년간(2024-2026년) 추진할 전략을 도출했다.

주요 내용으로 1차년도 데이터 행정 기반 조성, 2차년도 데이터기반 행정 업무 적용, 3차년도 조직문화로 데이터행정 정착을 목표로 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개선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데이터 활용문화 조성의 3대 추진 전략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 정비 △공동활용 데이터 발굴 및

공유 확대 △데이터 활용 우수 사례 공유 및 성과 환류 △데이터 역량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 9개 중점 추진과제, 14개 세부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최기문 시장은 "이번 기본계획을 토대로 데이터 분석·활용 문화를 형성해 직원들이 데이터와 업무 지식을 함께 보유한 전문가로서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해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석열 기자jis92920@hanmail.net

가인전력에너지
대표 김 영 철

경주시 안강읍 북부리2길 37
☎ 054-762-2007

세무법인텍스코리아
대표 김 창 호

경주시 원화로 306(성동동 5층)
☎ 054-777-2666

경상투데이
광고 문의

대표전화
☎054-748-0070

경주시 양정로235(동천동)
덕양빌딩 8층

여름밤의 운치 속 떠나는 '안동 문화유산여행' 전 국민 취향저격

26일~내달 4일 월영야행 운영
여덟 가지 테마로 볼거리 가득
LED선유줄불놀이·MBTI조명 등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 선사
더 친근한 지역 이미지 홍보 기대

안동의 여름밤 월영교를 품고 있는 안동댐 일원에서 '안동문화유산야행, 월영야행' (이하 월영야행)이 오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열흘간 개최된다.

월영야행은 국가유산청, 경북도, 안동시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한국정신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국가유산청 공모 사업이다.

월영야행은 안동이 가진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보다 쉽게 안동의 문화유산을 시민들과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8야(八夜)의 테마별 세부 프로그램들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으로 하회선유줄불놀이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LED 하회선유줄불놀이 스팟존이 관공정 연못에서 펼쳐지며 하회별신굿탈놀이, 안동놀다리

밧기 등 안동의 대표적 문화유산 공연뿐만 아니라 액티브존에서 간접체험이 가능한 차전놀이, 놀다리밧기 놀이기구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연령별 프로그램으로는 20~30대 관광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회탈 캐릭터의 상징성을 바탕으로 제작한 하회탈 MBTI 조명 거리를 조성해 젊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야경(夜景)과 야로(夜路) 프로그램을 준비 중

이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월영별과'도 진행된다. 월영별과는 안동이 가진 문화유산 이야기와 월영교 일대의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한 역사퀴즈 프로그램으로 1~2학년, 3~4학년, 5~6학년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 우승자 3명은 시상품과 더불어 상훈으로 시장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한편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안동문화유산살롱 프로그램이 오는 26일 이억주 서울시립대 교수의 '안동이 말해주는 고려역사'를 시작으로 27일 전한길 메가스터디교육 강사의 '일타강사가 전하는 역사와 행복', 28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의 '한국문화와 역사흥보, 왜 중요하냐?'를 주제로 월영공원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석빙고, 선성객사가 있는 월영대 일대에서 캔들라이트 콘서트가 진행되며 개막나루 무대에서는 국악, 민요, 놀다리밧기 시연, 하회별신굿탈놀이 등 다채로운 공연이 진행된다.

화산업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신옹부전',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안동시지회에서 주관하는 '월영달빛 예술여행', 경북북부보훈지청에서 주관하는 '2024 독립문화재'가 개막나루, 월영공원 일원에서 추진된다.

또 안동문화유산야행, 월영야행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로컬 100선(지역문화매력 100선)에 선정된 바 있으며 홍보대사로 위촉된 '키르니 작가'와 함께 올해까지 국내외에 집중적으로 홍보될 예정이다.

안동시와 한국정신문화재단 관계자는 "올해 월영야행은 기존 다소 무겁게 느껴졌던 문화유산의 이미지를 벗어나 위트와 유머, 체험 위주의 이색적인 프로그램으로 준비 중이며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타겟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월영야행을 찾은 안동시민 및 전국의 관광객에게 안동의 새로운 이미지가 전달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오명수 기자homs7227@nate.com

임금 진상품 '꿀맛 영덕 복숭아' 직거래장터로 저렴하게!

당도·육질 뛰어난 '경봉' 출하
영덕읍·영해면 15농가 참여해
행사 맞춰 '영덕장터' 30% 할인

영덕군은 지역의 특산품인 복숭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복숭아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난 1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약 한 달간 영덕읍 남산리 마을회관과 영해휴게소 일대에서 '복숭아 장터'를 연다.

복숭아 장터는 산지에서 방금 수확한 신선한 복숭아를 중간단계 없이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하는 직거래장터로 영덕장터는 17농가가, 영해장터는 15농가가 참여한다.

이번 복숭아 장터가 열리는 영덕읍과 영해면의 두 장소는 7번 국도변에 가까이 있어 접근성이 좋고 주변의 다른 관광지나 편의시설로 이동하기 편리해 지역을 찾는 많은 이들의 발길을 붙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영덕군은 이번 오프라인 장터 외에도 온라인쇼핑몰 '영덕장터'에서도 복숭아 장터 기간에 30%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황대식 농촌지원과장은 "과거 임금님께도 진상한 제철 영덕 복숭아를 온라인에서 편리하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다시없는 기회"라며 "다양한 마케팅과 판로 개척을 통해 최고의 복숭아를 많은 분들이 접하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영덕 복숭아는 오십천 중심의 양지바른 사질토에서 충분한 일조량과 적당한 강우량으로 당도와 육질이 뛰어나며 복숭아 장터가 열리는 이달 중순부터는 만생종인 '경봉'이 주로 출하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서리나 병해 등 기후 피해가 없어 고품질의 복숭아가 3000t 이상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노환 기자shghks70@naver.com



대대손손가 가업승계 지원 가게 5곳 선정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맞춤 컨설팅·브랜딩 추진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구미시 향토장수소상공인 대대손손가 가업승계 지원사업' 최종 선정가게 5개소를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대대손손가 가업승계 지원사업'은 올해 첫 시행 사업으로 20년 이상 대를 이어 운영하는 구미시 5개 업체를 지원해 구미시 대표 소상공인으로 육성한다. 최종 선정된 5개 점포는 지난 19일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전문 업체의 진단 컨설팅을 통해 각 가게만의 특화된 컨셉으로 브랜딩 개선을 추진한다.

선정된 가게 5곳은 산동 탁주양조장(정신자 대표·주류제조), 금오산길(김준연 대표·음식점), 라망웨딩(백지만 대표·웨딩샵), 산동 장안식당(유재훈 대표·음식점), 모던덕오리전문점(김동훈 대표·음식점)이다.

선발된 가게는 맞춤형 브랜딩을 위한 전문 컨설팅 5회, SNS 홍보지원, 판로개척 등의 마케팅 지원, 브랜딩 개선을 반영된 패키지, 벽화, 외부 시트지, 메뉴판, 조명, 입간판 등의 비용 500만원 등을 포함해 점포당 총 1500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가게들이 역사가 있는 지역 랜드마크로 발돋움해 제도약의 기회를 갖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구미시 대표 소상공인임을 인증하는 대대손손가 현판을 교부해 전통있는 대대손손가임을 인증하고 업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

이문락 센터장은 "아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고 구미시가 문화도시로 성장에 일조하겠다"고 했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

경주 유·초등 인사전문가 '한자리'

경주교육청, 자문 협의회 열어
합리적 인사 기준 개정 틀 마련

경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8일 오후 2025년 3월 1일 시행을 앞둔 유·초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 개정을 위한 인사 자문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유·초등 인사전문가로 구성된 내·외부위원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일 실시된 유·초등 교육공무원 인사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인사 전문가

의 자문을 거쳐 합리적 인사 기준 개정의 틀을 마련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유·초등 교원 인사 급지 조정 및 특수경력직 추가·삭제, 사서교사 전보 규정 보완, 특례전보 조항 추가 보완, 자구 수정 등 제안된 안건에 대해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보완했다.

권대훈 교육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유·초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 마련을 위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오늘 논의된 인사 자문 의견을 바탕으로



대다수의 교원이 수긍하고 만족하는 합리적인 인사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경규 기자seoul411@hanmail.net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축하드립니다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블에이치플랜
종합이벤트 기획·연출·진행

대경경자청, BIX서 유망 기업 유치에 '총력'

DGFEZ홍보관 운영 '이목집중' 바이오·제약분야 인프라 소개 투자 관심기업 발굴, 협의 진행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엑스코에서 개최된 2024 바이오플러스 인터팩스 코리아(이하 BIX)에 DGFEZ 홍보관을 운영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바이오·제약 분야 투자 강점을 홍보하고 기업 유치 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BIX는 국내 최대 바이오·제약 종합 컨벤션 행사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론자 등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기업 및 글로벌 바이오 소부장 기업인 머크, 써모피셔사이언티픽 등 포함해 역대 최대규모 15개국, 232개사가 참가했고 1만명이 참가했다.

대경경자청은 이번 BIX 전시회에 DGFEZ 홍보관을 설치해 바이오·제약 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있는 신서점단의 묘지구와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를 중심으로 홍보 및 유치활동을 전개했으며 다수의 투자 관심기업을 발굴하고 심도

있는 투자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는 독일과 미국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설립된 '세포막단백질연구소', 국내 최초 식물 백신 상용화 시설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벤처·중소기업 특화 입주 공간인 '지식산업센터'가 운영 중이며 바이오 분야 벤처 창업 지원을 위한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를 비롯한 '해양바이오메디컬실증센터', '동물용 의약품생산센터' 등이 설립 진행중에 있어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과 벤처 창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난달 27일 산업부 주관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선정돼 글로벌 바이오거점 조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삼 청장은 "이번 BIX 참가는 글로벌 기업 및 수도권 기업에게 DGFEZ의 바이오·제약 산업 강점을 적극 홍보하는 좋은 기회였으며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해 유망한 기업 유체에 더욱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wondrumkakao@daum.net



DGB금융그룹, ESG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 후원 '눈길'

올 228개 팀 참가, 작년비 77% ↑ 해피빈 통해 1만4천개 응원 댓글 사회공헌 대한 선한 영향력 확산 황병우 이사장 "제안 적극 실행"

DGB금융그룹 DGB사회공헌재단은 지난 17일 i뱅크 제2본점에서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참신한 사회공헌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개최된 '2024 ESG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 발표 및 시

상식'을 후원했다. 이번 후원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과 공동으로 진행해 지역 현안을 공기업과 함께 협력해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대구사회복지협의회와 네이버해피빈이 주최·주관하는 'ESG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은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디지털 사회공헌, 지역복지, 일자리 복지,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감 등 다양한 영역의 주제로 전국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와 전국 대학생 부문으로 나눠 진행했다.

올해에는 228개 팀이 참가해 작년 참가팀(151개)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났고,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1만4000여개의 네티즌 응원 댓글과 아이디어 투표까지 이뤄져 사회공헌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확산해 눈길을 끌었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학생 7개 팀과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단체 10개 팀은 별도의 컨설팅을 통한 내용 보완 과정을 거쳐 이날 발표회에서 아이디어를 설명하며 경연을 펼쳤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사회복지지

식 부문 대상에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 팀이, 대학생 부문에는 '경북대학교 똑딱'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황병우 DGB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 "전국 네티즌의 응원을 받아 올해는 더욱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서 기쁘다"라며 "제안된 아이디어가 잘 실행될 수 있도록 ESG 경영 실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강두용 기자wondrumkakao@daum.net

'달콤 아삭' 영천 복숭아, 인니 취향 저격

영천시는 지난 17일 임고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서 인도네시아에 복숭아 수출을 위한 선적을 했다. 올해 첫 수출길에 오른 복숭아는 경

봉 품종으로 금주에 300kg(84박스)를 우선 보내고 다음 주에 900kg 상당을 추가 운송한다. 운송된 복숭아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롯데마트, HERO 마

켓, RANCH 마켓에 유통돼 현지 소비자들이 달콤하고 아삭한 영천시의 경봉 복숭아를 맛볼 수 있게 된다.

임고농협은 올해 3월 정부 수출단지로 신규 지정을 받은 이후 해외 개척을 위해 지난 4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현지 유통시장을 조사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바이어 면담을 진행했다.

영천시는 이번 복숭아 첫 수출을 계기로 신선 포도, 가공식품 등 다양한 농특산물 수출을 확대해 잠재 구매력이 높은 인도네시아 신시장 개척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정석열 기자jsy92920@hanmail.net

8월부터 가스요금 '1.41원' 오른다 4인 가구 기준 월 3770원 증가 예상

한국가스공사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을 1.41원/MJ(6.8%,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다. 일반용 도매요금은 1.30원/MJ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요금(주택용)이 약 3770원(VAT포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매요금은 지난해 5월 인상(1.04원/MJ, 5.3%) 이후 현재까지 동결 중으로 원가 미반공급 지속으로 악화된 가스공사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는 한편 서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지난 2021년 말 1조8000억원에서 2022년 말 8조6000억원으로 급증했으며 2023년 1회 요금 인상에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다.

가스공사는 현재 부채비율이 600%를 상회하고(별도 기준 624%, 24.1Q) 미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이 연 5000억원을 초과하는 등 이번 요금 인상은 안정적인 천연가스 도입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강두용 기자wondrumkakao@daum.net

의성군 '전통주 창업학교 전문가 과정' 개설

의성군은 지난 15일부터 의성군 안계면 6차산업클러스터(의성군 안계면 양곡1길 16) 실습실에서 기초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전통주 창업학교 전문가 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전통주 창업학교 교육은 지역의 전통주 리더 양성과 의성진쌀의 소비를 목적으로 수행기관인 '막걸리 학교(대표 허시명)'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달간 기초과정(1·2기)을 개설했으며 농업인, 지역 양조장 대표, 양조장 창업을 희망하는 자 등 다양한 분야의 군민들 30명이 수료했다.

이어서 열리는 전문가과정은 기초과정 수료자 중 17명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됐다. 총 8강(주 2회)으로 구성됐으며 강의 방식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대외 전통주 창업과 관련한 이론과 실

습으로 진행된다. 특히 의성의 특산물을 활용한 실습으로 △연잎 술 △허브 술 △과일 약주 등 전문 강사들의 교육을 통해 의성만의 특산주가 나와 가공식품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교육생들은 오는 10월 12일에 안계 행복플랫폼에서 열리는 전국 전통주경연대회에 참가 신청을 마쳤다. 2024년 대회는 전국 신청자 266명(약주 98명, 약주 168명)중에서 의성 참가자는 18명으로써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주수 군수는 "전통주 교육을 통해 식문화를 계승하고자 하는 리더의 발굴과 농특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를 바란다"며 "향후 고조리비서(古調理祕書)에 나오는 의성김씨 문종의 온주법(溫酒法)을 계승한 의성만의 전통주가 나오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안동 글로벌전기, 이웃에 라면 기부



안동시 송천동 소재 글로벌전기는 지난 18일 용상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라면 100박스(12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이번 기부는 글로벌전기가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에게 힘이 되고자 진행했으며 기부된 라면은 용상동의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조종길 대표는 "최근 성곡동 일대에 폭우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용상동에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힘든 일도 '함께 라면' 이겨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기부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오영수기자oms7227@nate.com

의성 자총, 어르신 분리수거 지도



한국자유총연맹 의성군지회는 지난 17일 어르신 40명에게 자원순환 환경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교육에 참석자들은 평소 궁금했던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김영식 회장은 "앞으로도 생활밀접형 환경교육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성군지회는 올해 처음으로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0월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경로당에서 12회 실시할 계획이다.

정성수기자power5151@naver.com

구미도시공사-구미교육청, 초등 환경보호 의식 고취

환경과학교실 운영·홍보 MOU
하수처리 원리·체험·시설 견학

1일시 · 2024. 7. 18.(목) 16:00 | 장소 : 울림errick기념관 3층 회의실



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찾아가는 환경과학교실은 구미도

시공사 환경본부 직원들이 학교로 직접 찾아가 하수처리 원리와 미생물

관찰, 환경분석 체험 및 하수처리시설 현장견학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한다.

관찰, 환경분석 체험 및 하수처리시설 현장견학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구미도시공사와 구미교육지원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오는 8월부터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재용 사장은 "미래세대의 주역이 될 초등학생들에게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일에 구미교육지원청과 뜻을 함께 하게 돼 매우 기쁘다"라며 "친근하고 다양한 환경교육 콘텐츠를 개발·제공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는 생활 습관과 실천 능력을 기르는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박의분기자ub0104@hanmail.net

청송농업협동조합, 저출생 극복 '힘 보태'

군에 기부금 1000만원 기탁

청송군은 청송농업협동조합이 지난 18일 군청을 방문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부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종우 조합장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청송농업협동조합에서 기탁한 기부금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윤경희 군수는 "저출생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저출생 기부금 모금 운동에 도움을 주신 청송농업협동조합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들에 많은 관심과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영국기자wdr1211@hanmail.net



성주로타리, 지역 아동센터에 냉장고 선물



이경규 성주로타리클럽 회장 및 배재호 총무는 지난 11일 성주지역아동센터에 200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기탁했다.

성주로타리클럽은 올해 창립 24주년을 맞이했으며 제24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경규 회장은 취임 기념으로 배재호 총무와 함께 저소득층 기탁에 동참했다.

냉장고를 기탁받은 성주지역아동센

터 박옥연 센터장은 "기존에 쓰던 냉장고가 오래돼 고장이 잦았는데 냉장고를 기탁해줘 감사하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경규 회장 및 배재호 총무는 "기적을 이루는 로타리 라는 슬로건처럼 작은 나눔으로 시작해 큰 변화를 이끄는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일호기자hoyai515@daum.net

봉화 오상원, 고등학생 3명 장학증서 전달



봉화고등학교는 지난 19일 본교 강당에서 오상원 장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증서 전달식을 진행했다.

장학증서 전달식에서는 2024학년도 오상원 장학생으로 선정된 1학년 김예은 학생과 2학년 손무빈 학생 그리고 3학년 김민지 학생에게 각각 장학증서가 전달됐다.

이날 행사에서 오상원 건축사는 3명의 장학생들에게 1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 이 사회에 희망의 빛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라는 짧지만 의미 있는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날 장학금을 받게 된 세 학생은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다른 학우들의 귀감이 되도록 학교생활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라는 뜻을 소감으로 밝혔다.

정취영 기자jhy4430@hanmail.net

동 정

서구 직원과의 소통공감토크 참석



홍준표 대구시장은 22일 오후 3시 대구시 서구 비원뮤직홀에서 개최되는 서구 직원과의 소통공감토크에 참석할 예정이다.

제3회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 시상식



최기문 영천시장은 22일 오후 2시 30분 대회 의실에서 열리는 제3회 영천시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에 참석한다.

실과원장·읍면장 확대간부회의



윤경희 청송군수는 22일 오전 9시 제1회의실에서 실·과·원·소장 및 읍·면장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대가야읍 군계획시설 회의 참석



이남철 고령군수는 22일 오전 10시 30분 군수실에서 열리는 대가야읍 군계획시설(유원지) 회의에 참석한다.

여름철 사랑의 온기나눔 릴레이



박현국 봉화군수는 22일 오전 11시 군청 잔디광장에서 열리는 재난재해 대비 여름철 사랑의 온기나눔 릴레이에 참석한다.

상주, 유아 휴연위해 예방 교육 '앞장'



상주시보건소는 지난 18일 2회에 걸쳐 3-5세 유아 98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유아 휴연위해 예방교실'을 운영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시·군·구 보건소와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아들에게 담배의 해로움과 간접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한국생산성본부의 소속 전담 강사가 방문해 '노담밴드와 친구들'을 바탕으로 구연동화, 휴연위해 예방 신체활동 및 체험활동 등을 전개하며 가정연계 교육 교재도 제공했다.

임창완기자changwan12@naver.com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의관정제 선비의 깃

'의관정제-선비의 깃'은 배향인물(이연적)과 선비문화와 관련된 체험, 전시 등 복합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육산사원의 문화적, 건축적, 사회적 가치(OUV)를 확산하고 서원의 무거움(이피디)을 다가가기 쉽게 만들고자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명	기간/참가비/대상	장소	내용
갯비구 놀자	2024년 4월~10월 매주 토, 일 (총 54회) 일반인, 외국인, 단체 무료 상시 운영	갯비구 투어 스튜디오 미션투어 프로그램	1.의관정제: 의관정제(衣冠正制)는 옷과 모자를 바르고 가지런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선비들은 걸음습이 바르니 항상 몸과 마음을 정돈한 후 공부에 임했습니다. 선비복 입는 법을 배워보며 몸과 마음을 정돈해 볼까요? 2.육산서원: 선비들은 공부에만 몰두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원의 구조를 살펴보면 유식(遊息) 공간인 누각이 있어 공부뿐만 아니라 휴식도 중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옛 선비처럼 차 한잔과 함께 자연 속에서 휴식을 만끽해 보는 건 어떨까요? 3.삼색명필: 육산서원에서는 조선 최고 서예가들의 글씨를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강당 건물 처마에는 김정희 글씨 현판이 걸려있고, 안쪽 마루 위에는 후대에 다시 제작한 이산재 글씨 현판, 무병루의 현판은 안석봉의 글씨로 새겨져 있습니다. 현판 글씨를 한 획씩 그아보며 명필들의 글씨를 감상해 볼까요? 4.육산의 가치: 구인당(求仁堂)은 화재의 저서 '구인록(求仁錄)'에서 이름을 따왔으며 유생들이 모여 학문을 연구하고 논하는 장소로 강학 공간의 중심 건물입니다. 학문을 연구하던 구인당에서 육산사원의 이야기가 들려오며 선비들의 삶과 철학을 배우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역사 속에 숨겨진 지혜와 가치를 발견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5.만인록: 육산서원에 소장중인 만인소를 모티브한 프로그램으로 육산서원에서 느낀점을 적어보는 마지막 코스
육산스테이	2024년 4월~10월 1박 2일 (총 28회) 단체 20명 이내 유료 운영	육산서원 독막당 왕림마을	·구과 시그널 ·육산총 동당 ·독목록 독막당 ·육산클래스 ·왕림총 동당

문의·접수: 신라문화원 054-777-1950 www.silla.or.kr

주최: 육산신라문화원 후원: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경주시



지난 18일 문경시 산양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을 위해 여름김치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산양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올해에도 협의체 위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직접 담근 여름김치를 37개 경로당 및 저소득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하며 안부인사를 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양면 지역기업인 문경미소(대표 김경관)에서 오미자 김 48박스를, 문경시이웃사촌복지센터에서 70만원을 후원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온기가 더해졌다.

구자균 공공위원장(면장)은 "이번 여름김치 나눔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영천 금호읍, 호우피해 복구 '구슬땀'



영천시 금호읍에서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여러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복구작업에 힘을 보탰다.

지난 18일 금호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름다운 마음들의 모임, 영천시 자원봉사센터 3개 단체 15여명의 회원들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독거노인 가구에 방문해 주민을 위로하고 수해복구 활동 및 도배, 장판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했다.

장명희 회장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어르신 가구를 직접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손태국 읍장은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준 지역의 단체회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즉각적인 수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식열 기자isy92920@hanmail.net

동국대경주병원, 신뢰 받는 의료 중추 역할 '톡톡'

지역거점병원 추진상황 보고 정주호 병원장 "시민의 건강 책임질 수 있는 병원으로 거듭"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지난 18일 학교법인 이사장이자 건학위원장인 윤국 돈관 큰스님과 이철우 도지사, 주낙영 시장 등 각급 기관장 및 교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거점병원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부인과 복강경센터 개소 △중환자실 확충 △최첨단 의료장비(PEC-CT, 선형가속기, 다빈치 로봇수술기 등) 도입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수술

실 증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 등의 성과를 보고했다.

정주호 병원장은 "급성기질한 진료 중심 권역거점병원과 믿고 찾는 동국대병원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의료의 중심으로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힘차게 달려왔다. 앞으로도 환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지역과 함께 하는 신뢰받는 병원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니 끝까지 믿고 성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호흡기·폐암센터 구축, 최신 듀얼-에너지 CT 도입, 감염병 치료병상 구축 및 중환자실 추가 증설, 응급의료센터

확장, 입원 병상 확충 계획 등 중진료 권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위한 끊임없는 변화와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4월 17일에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을 위해 비전 선포식을 가진 바 있다.

서경규기자seoul1411@hanmail.net

"고령 지역의 저출생 문제 극복 밑거름 되길"

우곡면 여성자부회, 100만원 기탁

고령군 우곡면 여성자원봉사회(회장 박정숙)에서 지난 18일 군청을 방문해 지역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우곡면 여성자원봉사회는 해마다 이웃돕기 성금 및 물품을 기탁해 나눔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우곡면 여성자원봉사회는 "저출생

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탁한 성금으로 고령군의 저출생 극복에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남철 군수는 "저출생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금을 기탁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고령군 저출생 극복하는 사업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



천주교 안동교구, 영양 수해민 위한 성금



천주교 안동교구는 지난 19일 영양군을 방문해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 8일 집중호우로 농경지 침수 등 타격을 입은 수해민과 지역의 수해복구를 위해 천주교안동교구 신자들이 뜻을 모아 기부했다.

김학록 총대리신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해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금을 기부하게 됐다. 수해민

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빠른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오도창 군수는 "호우 피해로 생계수단을 잃고 망연자실한 주민들을 위해 소중한 기부를 해주신 천주교안동교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했다.

천주교안동교구는 지난해에도 집중호우 피해를 겪은 4개 지역(영주, 문경, 예천, 봉화)에 수해민을 위한 성금을 기부했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청도읍 새마을부녀회, 시원·달달 수박 선물



청도읍 청도읍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9일 여름철을 맞아 어르신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수박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청도읍 새마을부녀회는 이번 행사에서 수박 100여통을 소외계층에 전달했으며 그 외에도 정기적으로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에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와 '사랑의 밑반찬 나눔 봉사' 등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다.

김성미 부녀회장은 "새마을부녀회 회원들과 함께 어르신과 소외계층이 여름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했다. 시원한 수박 맛있게 드시고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용부 읍장은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수박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잘 전달돼 모두가 행복한 청도읍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병열 기자artmong0@naver.com

마성면, 올해 첫 출생 가정 축하



문경시 마성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8일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와 함께 올해 첫 출생 가정을 방문해 축하선물을 전달하고 탄생의 기쁨을 함께했다.

마성면 신현1리에 거주하는 서씨 부부는 지난 6월 20일 남아를 출산하며 지역 내 출산율 증가와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에 대한 긍정적 신호를 줬다.

지성환 면장은 "함께 참여해주신 단체장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출생 가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출생·양육하기 좋은 마성면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경시는 출산장려금으로 500만원을 지원하고 출생아당 200만원의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실시 중이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바살운 감문면위, 연도변 환경 정비



바르게살기운동 김천시감문면위원회는 지난 18일 회원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연도변 환경 정비를 했다.

리도 206호선(은림사거리-구아리마을)을 중심으로 환경 정비를 했으며 연도변에 버려진 쓰레기와 함께 최근 비가 많이 내려 빗물에 휩쓸려 내려온 폐기물 등도 함께 정리했다.

이날 박영혜 회장은 "이번 환경 정비 활동에 참여해 주신 회원들에게 감사 드린다"면서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바르게살기운동김천시감문면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금광수 기자kgs5149@naver.com

MY UNIVERSE GYEONGSAN

무엇보다 시민 중심 행복경산

대학도시를 넘어 창업도시로! 'ICT허브도시 경산'

■ 특별기고

관광인프라 무대책 하회마을

김취태
전 안동시 풍천면장



전국도 아닌 경북관광 10선에도 들지 못한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이라니 어쩌다가 100만 관광객이 50만으로 반토막이 났는가? 관광트렌드가 변했다고 둘러댈 일이 아니다. 외부 주차장, 병산서원 순환관광, 부용대와 병산 쉼터, 신도시와 가일·소산·오미·서미 관광벨트 등 긴요한 관광인프라를 왜 구축하지 않는가? 관광거점도시, 천만관광은 인간생명이 고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라는 위상마저 흔들리는 것 같다.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가 근접해 관광단지 조성의 호기가 왔는데도 신도시 중심의 관광벨트와 체류관광정책은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 양념 건설 후에 낙동강 육지화로 버드나무 숲이 백사장을 뒤덮고 진흙이 쌓여서 자연경관도 사라져간다.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다. 세계문화유산이 됐는데 환경경비도 안 되고 외부에 대형주차장도 없다. 관광단지도 조성해야 되지만 우선 신도시의 위락시설로 체류관광을 연계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신도시 계획부

터 주차장과 지적에 산재한 역사문화마을 관광벨트를 구축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외압된 말이지만 '여왕이 왔다', '대통령이 왔다', '봉정사와 도산서원으로 로얄웨이를 구축한다' 등 이런 외형적인 관광시책을 추진해 오면서 테마관광이라는 의식을 잊어버린 것 같다.

관광객이 느낄 수 있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항일독립운동 등의 역사문화와 정신적 가치를 담겨두고 빈껍데기 관광에 매몰돼 버린 것이 아니다. 관광 트렌드라는 것도 있지만 관광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면 다시 찾아오는 관광의 맛을 느낄 수 없다.

특히 안동 관광은 대부분 정신적 품격을 가진 것이므로 유·불교를 넘나든 로얄웨이라는 길 따라 관광은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별개의 관광으로 로얄이 찾아온 실제적 진실을 체감해 보는 테마관광이라야 품격이 있다.

그리고 콘텐트라는 말을 그렇게 무수히 해오면서 하회마을에 와서 정비육을 보고 부용대에 올라 마을 경관과 사방으로 틀어 얹은 기와집 초가집들의 내력을 알아봐야 탈춤과 줄불놀이의 의미를 느낄 수가 있는데 쉼터 떠내려갔다고 흥수 나고 안전사고 난다고 기술적으로 충분한 잠수교를 놓지 않는 안동시의 행태는 절망이다.

다른 지역과 합리적이고 기술적인 상상방안도 살펴보면 청송, 영월 등에서 장마기에는 절거하고 갈수기에 재설치하며 공무원이나 주민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작업해 예산을 줄이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쉼터 철거와 설치작업도 하나의 축제행사로 승화시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도 매력적이라고 한다.

제3의 방안으로 나룻배 부활이나 도선운행이다. 병산서원은 부교설치도 가능하다. 어떤 방안이든 강은 건너야 입체관광이 된다.

한쪽에서 바라보는 반쪽관광은 흥미가 없다. 최근에 하회마을 관광객이 반토막 나는 것도 단순한 관광형태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쉼터로 관광객이 30%나 늘어났는데 이러면 더 이상 희망은 없다.

신공항에서 20분 거리에 있고 사방으로 철도가 연결되면 도청신도시와 하회권역 순환관광은 전성기를 맞이할 것이다.

지금당장 1000만 관광객들을 수용할 승용차 7000대와 대형버스 1000대의 주차장 30만㎡(10만평)를 하회삼거리 부근에 조성하고 storytelling thema 관광코스를 6개 block system으로 구축해 순환관광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하회마을 내부순환 쉼터부터 외부순환 하회, 병산, 가일, 오미, 소산, 서미 등 6개 코스를 셔틀버스로 연계관광 할 수 있도록 2~3일 정도의 관광schedule를 마련해야 한다.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신도시지역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해 세계유산과 한국정신문화에 local food까지 환상적인 체류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야 한다.

■ 독자기고

자유의 수호자 유엔군 참전의 날을 기리며

정은주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



올해는 6·25전쟁 발발 74주년이다. 지난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한반도에 큰 상처를 남겼다. 그 당시 우리는 군사적·경제적으로도 취약한 상태였으며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희망조차도 희박해 보였다.

하지만 유엔은 신속한 결의안을 채택해 국제

연합군을 파견했고 198만명의 영웅이 국적을 초월한 인간애와 헌신으로 우리의 자유를 지켜냈다.

이들 영웅 중 4만여명이 목숨을 바쳤으며 전사, 부상, 실종 등 총피해 인원은 15만여명에 달한다.

6·25전쟁이 발발 후 3년 1개월이 지난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북한군, 중공군 그리고 유엔군 측의 미군 대표가 휴전 협정에 서명하면서 정전협정이 체결됐다.

이 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세계 각국에서 온 유엔 참전용사들의 헌신이 있었다.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자 정부에서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지정했으며 6·25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은 지난 2013년부터 해마다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기

념식을 진행해 오고 있다.

올해는 '함께, 모두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여의도 KBS홀에서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우리 민족의 근면 성실함으로 오늘날의 경제 발전을 이뤄낸 대한민국은 더이상 원조받는 나라가 아닌 원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머나먼 이국땅의 평화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젊은 날의 청춘을 바친 참전용사들이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했는지 다가오는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한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헌신해 주신 모든 유엔 참전용사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들의 영웅적인 이야기는 영원히 빛날 것이다.

■ 사설

도현이법 법전에 오를까

22대 국회에 입성한 강원 여야 국회의원들이 급발진 의심사고 시 입증 책임을 제조사에 두도록 하는 일명 '도현이법' 제정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급발진 의심사고가 일어난 강릉을 지역구로 둔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시 결합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조사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7년 개정된 현행법에는 소비자가 제조물인 인 피해를 입었을 때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데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손해배상 입증책임의 주체를 전환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평한 입증책임의 분배를 위해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제조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도 있다.

권 의원은 "고도의 기술력으로 제조된 자동차의 결합을 비전문가인 일반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입증책임은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리"라며 "개정안을 통해 입증책임은 현실에 맞도록 재분배하고 국민들을 급발진 피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해 논의한 법안들의 주요한 내용을 한데 모은 것이다.

허 의원은 "법체계의 유의미한 전환과 직결된 '입증책임 전환' 규정 적용 대상을 이전 법안 대비 확대했다"면서 "다육 균형 잡힌 정보 접근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비밀유지명령 제도'도 이번 법안에 함께 담았다"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3만개나 되는 내연기관 차량 부품과 복잡한 최첨단 전자기술까지 적용되는 가운데 일반 소비자 역량으로 결합 여부를 제조사와 따지는 건 불가능"이라며 "법 개정으로 소비자 권리가 제대로 보장돼 단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억울함을 풀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동차 폐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급발진 추정 사고 등 각종 자동차사고의 원인 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전후 일정 시간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는 사고기록장치의 설치를 의무화,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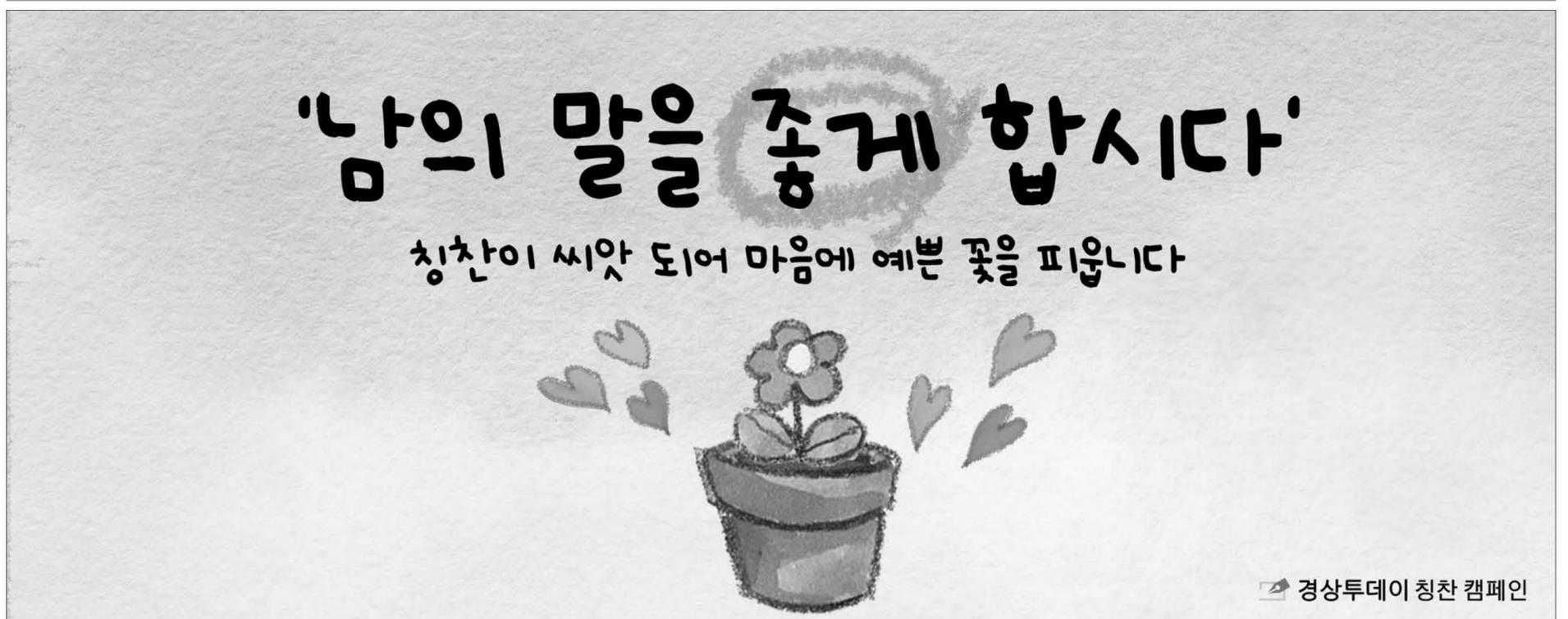
그러나 사고기록장치는 운전자의 접근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보분석에도 긴 시간이 소요돼 사고원인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영상정보가 배제돼 사고기록장치의 기록정보만으로는 급발진 여부를 판별하는데 한계가 있고 기록정보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완성차업체와 차량제조사 등이 자동차 폐달의 조작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해 해당 영상정보가 급발진 여부 판별에 직접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 외부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상투데이		창간 2014년 3월 31일 등록번호 경북.가00032 http://www.gyeongstoday.com	
발행·편집인 이승협		편집국장 박성택	
본사 대표전화 (054)748-0070	사회 2부 <구내>1005	판매·광고 (054)748-0070	
편집부 <구내>1004	문체부 <구내>1007	경영·관리국 <구내>1006	
사회부 <구내>1006	정책부 <구내>1008	F A X (054)748-3363	
구독·광고·제보 ☎054-748-0070		E-mail : gst3000@naver.com	
*경주시양정로 25(동천동) 덕양빌딩 8층 구독료 월정 1000원/1부당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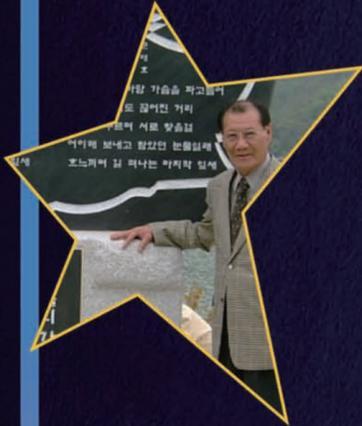
「정귀문」

고향의 정취 · 향수를 담은 노래로 국민의 심금을 울린 작사가

2024

정귀문 가요제

2024 Jung Gwi-moon Song Festival



| 접수기간 | 2024.7.1~2024.7.31(31일간)

| 참가대상 | 전 국민 누구나

| 참가곡 | 트로트 창작곡 또는 기성곡 1곡

| 신청방법 | 경상투데이 홈페이지(www.gyeongsangtoday.com)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 참가신청서 접수 : today140331@naver.com

※ 신청문의 : 경상투데이_054.748.0070(기획미디어부)

※ 자세한 사항은 경상투데이 홈페이지에서~

예선

2024
8/10(토) 14:00

경주화랑마을_대회의실(전시관3층)

본선

2024
8/24(토) 19:00

경주_봉황대 특설무대